

1. 2024. 3. 28. 목 13시까지 길 신경림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3. 2024. 3. 28. 목 13시까지 독방길 유재영 어린 염소 등 가려운 여우비도 지났다. 목이 긴 메아리가 자맥질을 하는 곳 마알간 꽃대궁들이 물빛으로 흔들리고 부리 긴 물총새가 느낌표로 물고 가는 피라미 은빛 비린내 문득 번진 독방길 어머니 마른 손 같은 조팝꽃이 한창이다.
2. 2024. 3. 28. 목 13시까지 벼락 이성미 밤하늘을 그어 버리는 노란 손톱자국 놀란 거인이 쿵쿵거리며 달려나온다	4. 2024. 3. 28. 목 13시까지 봄나무 이상국 나무는 몸이 아팠다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덥히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에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현대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